

경북도-22개 시군 '저출생 전쟁' 함께 싸운다

유망한 투자 몰리는 이차전지거점 '경북'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의 열이 늘봄학교·양육친화 임대주택 등 세부 과제 전략 모델 발굴 최선 아동 동반 근로·육출산휴가 한달 도청 우선 사업 원활 추진 당부



경북도는 6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22개 시·군 지역 부시장·부군수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저출생과 전쟁에 힘을 합쳐 총력 대응한다.

이를 위해 도는 6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22개 시·군 지역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가 지난달 20일 저출생과 전쟁을 공식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을 발표한 후 세부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시·군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경북도와 시·군의 핵심 역점 시책들을 소개하고 신속한 정책 실행과 조기 재원 확보, 도와 시·군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학홍 부지사는 최근 발표된 인구 통계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가파른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경북도가 내놓은 전략들이 빠르게 시·군 현장에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은 도민들의 조기 체감이 중요한 만큼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와 교육청 협업 사업인 '늘봄학교' 및 안정적인 주거 기반 제공을 위한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을 공유하고 시·군 실정에 맞는

저출생 극복 대응 모델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 도청부터 우선 시행하는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운영', '아빠 출산휴가 한달'과 성금 모금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가면서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시·군에서 제안한 돌봄, 주거 등 역

점 시책들은 향후 현장 토론회,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빠르게 구체화하고 검증을 마친 사업 모델들은 향후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조기 추정, 지방채, 성금, 기금, 민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 및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국가와 지방의 명운이 걸린 시급한 사안"이라며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섰던 경북의 정신으로 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이기자"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

도, 인터배터리 전시 홍보부스 운영 579개 사 7만5천명 규모 '역대 최대' 포항·구미산단 등 인프라 강점 어필

경북도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4 전시회'에 경북도 공동홍보부스를 구성하고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와 산업단지를 홍보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을 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전지산업협회, 코엑스, 코트라가 주관한다. 참가업체는 579개 사(1896부스)로 약 7만5000명의 관람객이 예상된다.

경북도는 이번 전시회에 공동홍보부스를 운영해 포항, 구미 등 경북도의 이차전지 소재산업 거점 중심으로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도는 '이차전지 소재산업 중심 경북도'라는 주제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시·군 투자유치 관계자들과 함께 포항 영일만산업단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등 차별화된 이차전지 투자환경을 홍보한다.

도와 시·군 관계자들은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 1 투자유치 상담회를 열어 투자요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역 유치 활동을 펼친다. 또한 구미·상주를 중심으로 에코프로와 LG HY BCM의 양극재, 포스 코퍼체임과 SK스페셜티의 음극재, 도레이 BSP의 분리막 등 소재분야부터 PNT, 아바코, 새빛캠, 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장비·부품·리사이클링까지 대규모 투자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도에 소재한 1800여개의 자동차부품 협력사들은 울산 현대차가 미래전지차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기존 내연차와 미래전지차 소재·부품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도는 이차전지 소재산업과 미래전지차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은 "경북도가 경쟁력 있는 산단을 제공해 이차전지 소재산업 생태계 확산과 고부가가치 소재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

대구, 글로벌 맞춤형 마케팅 '通'... 지난해 36만명 발걸음

전년비 28만↑, 코로나19 이전 51% 회복 '대구공항 입국자 다' 대만 14만6천, 구미주·동남아 순... S.I.T 관광객 유치 성과

대구는 지난해 해외를 타깃으로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활동과 관광 편의 서비스 환경을 개선한 결과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6만명으로 전년동기(8만명) 대비 28만명이 증가했고 2019년 동기(71만명) 대비 약 51% 이상으로 회복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는 12월 기준 36만명을 기록했다. 해외 국가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14만60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구미주 관광객 7만2000명, 동남아 관광객 5만5000명, 일본 관광객 3만2000명, 중국 관광객 2만6000명 순이었다.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수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문화

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수는 지난해 12월 누적 기준으로 9만1000명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416%가 증가했다.

이처럼 대구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대구국제공항 신규 직항노선이 증가한 가운데 해외 미디어 및 현지 방송프로그램 유치로 인한 대구관광 브랜드 확산과 대만, 동남아 등 해외시장 다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해외 특수목적단체(S.I.T) 관광객 유치 및 상품 개발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해는 외국인 개별여행객의 불만·불신·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지정(67개소), 교통거점 안내표기 개선, 관광숙박시설 환경개선 지원, 대구여행상징 운영(20개소) 등 맞춤형 관광정보 편의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왔다.

올해는 대구시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43만명으로 설정하고 대구관광 인지도·호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해외 관광 홍보 추진과 함께 외국인 개별여행객에게 편리하고 여

행하기 좋은 최적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인지도를 제고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대구시가 침체된 도시상을 부활시키고자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인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요건인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유치에 부합될 것으로 예상돼 대구 최초로 관광특구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조경선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대구시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의 대구여행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을 통한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 kwondrumkakao@daum.net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숲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길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빛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맛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쉼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강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DARK SKY ASSOCIATION

- 영양의 자연, 일출, 산비워와 남이로, 삼익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침계곡원, 촉백수원, 외씨바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서시, 두들마을, 주심마을, 관천마을, 지경마을, 근촌마을, 김선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문화비보공원, 반달별이전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수목원보신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공예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목사생화전시관

▶ YouTube 경상투데이

‘열공하는 경북도의회’ 도민 삶의 질 높인다

의원연구단체, 지난해 16곳 14건 과제 정책반영 3건 등 성과 지역 콘텐츠 활성화·아동 의료·꿀벌바이러스 등 분야 ‘다양’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 통한 ‘현안 해결·정책 발굴’ 재검증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입법과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해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 모임으로서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16개의 단체가 결성돼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14건의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8건, 도정질문 5회, 정책반영 3건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경계지역 발전정책 연구회’는 경북도와 각 시·군 담당공무원

과 경계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해 낙후된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열정을 펼쳤다.

특히 ‘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와 ‘지역 콘텐츠 활성화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경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 ‘경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경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조용진)’가 추진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는 지역의 청소년소아과병원 부족 문제에 대해 의료 협진을 통한 원격의료 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올해 ‘김천의료원 어린이 원격협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가져왔

또한 ‘꿀벌바이러스연구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꿀벌 실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레이크시나이 바이러스(LSV)가 경북 지역 내 상당히 확산되는 문제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확인된 바 없었던 LSV8의 발생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꿀벌 바이러스 확산과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을 감시하고 연구할 꿀벌바이러스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는 경북도의회 의정연구 활동으로 지역개발, 역사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 도정을 견인할 정책개발과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경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는 각 분야별 심도 있는 연구 활동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 ‘경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 ‘경북도 지방세 연구회’, ‘경북도의회 풍수해 방재 대책 연구회’,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 ‘경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 ‘경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 등 9개 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지난 2022년 8건, 2023년 1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올해 12개 의원연구단체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정책의회로서 기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켜가겠다”라며 “전문화된 의원 연구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더 나은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구미읍

(시민·후보·언론) 삼위일체 이뤄 정치 1번지 ‘구미’ 부상

허성우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역 선거문화개선 협조 당부

“당의 낙하산 공천 고리 끊고 선택권 주는 민주주의 시작”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들의 사심 없는 공천 작업은 대의와 명분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구미를 경선은 구미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국민의힘 허성우(사진) 예비후보가 “구미를 경선은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미읍은 전국적으로 핫이슈 지역으로 최근 국민의힘 공관위는 구미를 경선에 김영식·강병구·허성우·최우영 예비후보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허성우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구미를 지역 후보 공천을 위해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사필귀정이지 구미 민주주의의 승리이다”라고 했다.

그는 “구미를 지역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경선을 치른 적이 없는 경선 불모지였다. 지역 주민들은 선택권을 잃은 채 중앙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중앙당의 낙점을 받은 후보는 중앙 정치에만 몰두해 지역민들의 원성을 샀고 심지어

외지인 출신을 공천해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중앙당의 경선 결정은 이런 낙하산 공천의 고리를 끊고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구미시민들의 승리가 진정한 구미 지역의 선거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미)경선 결정을 내려준 중앙당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이 없다”라며 “당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갈수록 우호적으로 변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모든 당원

이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실시되는 경선 문화가 꽃을 피우고 지역민주주의 토착화 계기가 되려면 지역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누가 지역을 위한 진정한 일꾼인지, 현안을 풀어낼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가졌는지 치밀하게 살펴야 한다. 후보들의

살아온 여정과 경험·경륜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정성과 헌신성을 가진 후보를 뽑아야 한다. 국민여론조사 50%와 당원 50%의 선택은 절묘한 조합이자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최적의 비율이다. 이제 공천권을 확보한 지역민들이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구미의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지름길을 위해 경선투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성우 예비후보는 “정치문화가 개선되고 발전하려면 언론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지역 언론이 취재 일선에서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고 있다. 경선 과정도 한 치의 치우침 없이 정론·직필의 자세로 언론의 역할을 다해달라”며 “구미시민과 출마 후보, 언론의 3위 일체가 이뤄져야 구미의 경선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구미는 명실상부한 경북의 정치 1번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ub0104@hanmail.net

예천군의회 “도전적 의정으로 군민 뜻 실현의 중심될 것”

269회 임시회 개최... 8일 여정 주민발안 관련 전부개정조례 등 민생 밀착 안전 7건 심의·의결

예천군의회는 6일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3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외 1명),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흥년 의원 외 8명),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흥년 의원 외 3명), ‘예천군 중소기업육성 지원 용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흥년 의원 외 3명) 등 의원 발의한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천군 평생학습관(경도대 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이달 7일 김흥년·신향순 의원을 시작으로 8일 장삼규·이동화 의원, 11일 강영구·안양숙 의원, 12일 강경탁·박재길 의원이 4일간 23개 실·과·



소 대상으로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제시를 위해 총 26건의 군정 질문을 펼칠 계획이다.

최병욱 의장은 “갑진년 올해 예천군의회가 더욱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의견과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인사에서 “예천군 행정은 올해에도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한 예천, 행복한 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면서 “예천군 행정이 과감하고 도전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의사 일정에 앞서 안양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 통계에 따

르면 82.7%가 부모와 가족에 의한 사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녀발달단계별 양육방법, 부모·자녀 간 이해와 소통법, 아동학대 예방법 등의 부모역량 강화 교육으로 부모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예천군 부모교육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영천시의회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 마무리

영천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양면 삼귀리 군도13호선 사면보강공사 추진계획, 제22회 영천한약with작약꽃축제 추진계획 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상위법과 조례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지 부처와 세밀히 의논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의회는 “오늘 논의된 시정 주요 사업과 조례안들이 지역 특색과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영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식열 기자jisy92920@hanmail.net

정보산업의 핵심기술!

(주)대신측량기술이 이끌어 갑니다!




(주) 대신측량기술
DAESHIN SURVEY ENGINEERING CO., LTD

본 사 경북 포항시북구 중흥로267번길 16
TEL : (054)283-4870~1
FAX : (054)283-9915

경주시사 경북 경주시 태종로 685번길 31 2층
TEL : (054)624-2225
FAX : (054)771-2251

지적사업본부 본부장
오연진
HP : 010-3528-1335
E-mail : yunjin1335@naver.com

- ◆ 산업단지 확정측량
- ◆ 구획정리 사업지구 확정측량
- ◆ 주택단지(아파트) 확정측량 및 준공현황측량
- ◆ 구획정리 사업지구 분할 및 경계복원 측량
- ◆ 골프장 현황 측량 및 확정 측량



www.dssurvey.net

RPC시설 현대화로 '경북 쌀산업 경쟁력' UP

110억 들여 20개소 시설 개보수
첨단·규모화·기술혁신 기반 다져
품질 고급화·생산유통 역량 강화

경북도는 지역 쌀의 품질고급화, 유통비용 절감, 수확기 출하조절 등으로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종합처리장(RPC) 시설개선에 총 110억원(4개 사업, 20개소)을 투입한다.

미국종합처리장(RPC)은 수확된 벼를 선별, 품질검사, 건조, 저장, 도정 및 제품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품종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규모화와 전문화로 산지유통 역량 강화와 식량수급안정에 큰 역할을 한다.

도내 정부지정 RPC는 농협 13개소, 민간 11개소로 총 24개소, 벼 건조저장 시설인 DSC는 총 4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규모가 작고 노후화된 일부 시설은 개선이 지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국비 공모사업



57억원, 도 자체사업 53억원을 투입해 RPC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도는 PRC시설 현대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수확기 벼 매입기능 확충과 품질 향상, 생산유통 거점별 브랜드를 육

성해 유통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별로는 △국비 공모사업인 RPC 가공시설 현대화에 7억원(1개소),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29억원(1개소), 집진시설 개보수에 21억원

(3개소) △도 자체사업인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53억원(15개소)을 투입한다.

한편 연간 2만t 규모의 가공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구미통합 RPC가 오는 5월 준공한다. 지난 2022년 RPC분야 경북 최대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199억원(국비 68억원)을 투입했다. 구미통합 RPC는 구미시 7개 농협이 공동출자에 설립된 구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한다.

그동안 지역 농협에 흩어져 있던 소규모 시설을 1개 조직이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문화·규모화로 대외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 한해 경북 농정이 첨단화, 규모화, 기술혁신 3가지 혁신가치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농업대전환 확산에 돌입한 만큼 식량산업의 필수 기반시설인 최첨단 RPC가 쌀 유통을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K-종자산업 신품종' 통한 농업 혁신 견인

도농기원-국립종자원 업무협약
푸드테크·수출확대 등 공동 대응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6일 국립종자원(김천시 소재)에서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과 K-종자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해 '경북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경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K-종자 선도 신품종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식량작물로 쌀(다삼, 구름찰 등), 콩(새바람콩, 경후청, 빛나두 등)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원예작물로는 포도(글로리스타, 캔디클라렛, 골드스위트 등), 복숭아(미황, 수황 등), 딸기(알타킹, 비타킹 등)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농업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들녘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품목에 대한 품종 세대교체가 앞서 진행 중이다.

이에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기후변화, 푸드테크, 수출확대 등 급변하는 농업 생태계에 공동 대응하기 위

한 종자산업 육성 세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 종자산업이 안정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식량 종자 생산 체계 구축,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주산지 모종 중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수립, 신품종 개발 가속화를 위한 식물 신품종 심사 기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의 상호 이용뿐만 아니라 임무 교류 활성화를 위한 품종 검사 기술 개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종자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발굴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최근 급한 기후변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병해충이 지속해서 증가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기술원에서 농업대전환을 끌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품종을 개발해 경북 기술로 위기를 극복하고 종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신품종이 현장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 저출생 전쟁 승리 다짐... '우리동네 돌봄마을 시범' 운영

22개 시군과 정책회의 개최
완전 돌봄정책 전면화 논의

경북도는 6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과 도와 22개 시·군 업무협력 체계 활성화를 위한 '2024 온종일 안전 돌봄 정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이철우 도지사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저출생 극복 단계별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시·군과 논의하고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경북도는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경북형 공동체 돌봄모델

인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브랜드화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5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기존 돌봄 시설을 24시 돌봄운영제로 바꿔 시간을 전폭 확대하고 차량운행, 안전·방범, 자원봉사 지도, 친환경 간식 제공 등 전면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을 위해 시·군과 의견을 교환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졌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가정이 붕괴될 한 사유로 일과 시간 이후 아이 맡길 곳

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24시 마을돌봄터, 24시간 제 보육(365 어린이집) 등 기존 돌봄 사업의 시간 연장 및 운영 확대를 돌봄 공백 발생에 사전 대비한다.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며 이용률이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돌봄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외에도 경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영유아 보육·통합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인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의 비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경북행복아이키움' 등 사업에 대한 시·군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협업체

계 구축을 위한 의견도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추진하는 우수사례 총 26건을 공유하고 그중 참신하고 호응이 높은 3개 시·군의 사례는 세부 내용을 공유했다.

최영정 여성아동정책관은 "경북은 보편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과 시대 흐름에 맞는 틈새돌봄 지원으로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에서는 저출생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경북이 주도하는 온종일 안전 돌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돌봄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교육사랑카드 16억1670만원 적립

경북교육청은 6일 본청 3층 접견실에서 NH농협은행 경북본부와 경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전달식을 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난해 각급학교와 산하기관, 교직원들이 경북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해 모은 적립금 16억1670만원을 NH농협은행 경북본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6980만원 증가한 16억1670만원으로 전년 대비 4.

5% 증가했다. 전달받은 적립금은 학생복지 증진 사업 지원과 교직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사용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사랑카드 쓰는 어려운 학생을 돕고 세입 재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가족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교육청, 소속기관 건물명 현행화 완료

경북교육청은 각급학교를 포함한 전체 소속기관 도로명주소(건물명)의 현행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현행화는 건물명이 기관 신설, 이전, 기관명 변경 등으로 인해 '경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명칭과 불일치한 경우 이를 정식 명칭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이번 작업은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단설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총 835개 기관 중 건물명이 일치하지 않는 74개 기관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설·변경 등의 작업으로 진행됐다.

현행화 조치로 그간 건물명이 검색되지 않거나 실재와 달라 우편배달, 기관 방문 등에서 겪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교원 교육활동 침해 1395로 신고하세요

교육청, 신고·상담 원스톱 지원

경북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전국 단위 '1395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상담 등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 '1395'를 활용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주요 상담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접수와 피해 교원 관할 교육

지원청·소속 학교 연계 △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 건강, 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와 담당자 연계 △악성 민원 등 대응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연계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안내와 담당자 연계 △교원안심공제(보험)사업 안내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권침해 직통전화 '1395' 개통으로 교육활동 중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즉각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라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저출산 극복

경북형 새늘봄

🕒 조기퇴근 돌봄	🎒 학교 늘봄	🕒 심야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근로자 임금 보전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서비스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시 골프협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경북자경위 “아동·청소년들 일상 보호 최선”

유해환경·등하교 교통안전책 등 경북경찰청장에 대책 마련 지시 음주단속 관련 교통안전활동 강화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경북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지역 학교폭력이 지난 2022년 513건에서 2023년 532건으로, 아동학대는 2022

년 1180건에서 2023년 128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신학기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학교폭력 집중활동 기간 운영, 등·하교 시간대 중점 교통안전 대책 등을 시행한다.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 관련 추진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유관기관 협력 강

화를 통한 유해환경 개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예방 활동 적극 추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재범 방지 및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이다.

아동·청소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일제정비를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 △어린이 활동이 증가하는 등·하교 시간대 중점 교통의근활동 강화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교육강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식 제고 등을 내용으로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등 주민의 생활안전과 교통에 관한 사무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경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이와 더불어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 등을 집중단속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한 교통안전활동 강화도 주문했다.

이순동 위원장은 “신학기가 시작돼 도내 아동·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북경찰청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익명 기자p04140@naver.com



현장에 강한 소방대원들 경주소방서는 6월부터 8월까지 3일간 외근 소방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소방기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화재진압대원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구조대원 화학보호복(ABC) 착용 △구급대원 영아 심폐소생술 등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순국선열의 희생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경북도 보훈단체협의회 의성 총흔탑 참배 호국영령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 계승

의성군은 경북도 보훈단체협의회(회장 상이군경회 김성대 지부장)가 지난 5일 의성군 총흔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헌화·분향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주수 군수, 경북도 보훈단체협의회 회원, 의성군 보훈단체장, 이용수 경북북부보훈지청장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묵념 등의 순으로 경건하게 진행됐다.

김주수 군수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 신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함께 기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자긍심



과 보람 속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보훈단체협의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경북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총흔탑 참배 행사를 하고 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집중’

다중시설 225곳 시내공기 질 검사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어린이집, 지하역사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22개 다중이용시설군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질 검사를 실시해 쾌적한 실내환경 관리를 유도하고자 한다.

올해는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1035개 업소 중 255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항목은 시설군별 특성에 따른 필수 측정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상시설의 26.8%인 152

개 업소를 검사하고 대중교통시설인 버스, 철도, 공항터미널은 전체 시설을 검사해 환경부 지침(대상시설의 15% 이상 검사)보다 검사 비율을 강화했다. 도시철도 1·2·3호선 객차에 대해서 비혼잡시간대를 비롯해 혼잡시간대에도 실내공기 질 기준에 맞게 관리되

고 있는지 확인하고 올해 입주하는 신축 공동주택 중 10개 단지를 선정해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들에 대한 실내공기 질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회적 배려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검사를 실시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울진, 지역 의료공백 위기 ‘철저 대응’

울진군은 지난 2월 26일부터 의대 입학증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공백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병복 군수를

본부장으로 군 소속 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 8개 반 2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비상 진료 대책 수립,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북도 안전대책 본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일일 대책 회의와 협의를 통해 전국적인 위기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의료진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손병복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 의료공백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처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군민들도 정부의 대응에 잘 따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삼주 기자ksi09102@naver.com

포항해경, 해빙기 장비·시설물 일제점검

항목별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고장 요인 사전 제거 ‘주안점’

포항해양경찰서는 해빙기 대비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22일까지 3주간 합정 11척, 파출소 5개소 등 현장부서의 장비와 시설물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사항으로 합정 주요 안전장비 작동 및 관리상태, 합정(파출소) 물품 보급 실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상태 및 통신·항해 장비 기능을 확인하고 분야별 점검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세밀한 부분의 점검을 통해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합정의 항해·통신장비와 각종 기관설비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장비 고장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무엇보다 안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점검 중 장비 관리 개선 사항을 파악해 업무에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최상의 장비 상태와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김지한 서장은 “해빙기 장비 시설물 점검을 통해 긴급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기 기자hshin98@naver.com

안동시, 신학기 학교급식 위생관리 나서

조리용구 미생물 검사 실시

안동시는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4년도 학교급식 조리용구 미생물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조리용구 미생물 검사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조리실 내 위생상태 평가를 위한 것으로 검체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취하고 안동시보건소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학교급식 조리용구 미생물 검사는 급식시설을 갖춘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60개 교를 대상

으로 진행한다.

검사를 통해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조리용구(칼, 도마, 식판, 행주)에서 검체를 채취, 검사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살모넬라와 대장균의 검출 여부로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성을 확인한다.

김남주 보건소장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 전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유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오영수 기자oms727@nate.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혈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료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주낙영 시장 “환자 생명지키기 위해 현장에 남은 의료진 감사”

동국대 경주병원 찾아 점검·격려
탄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 당부
상호협력 통해 피해 최소화 ‘총력’

주낙영 시장이 지난 5일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날 주 시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지역 내 의료진에게 시민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지자체와 지역종합병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호 병원장과 함께 응급의료센터 운영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중증·응급 환자들이 어떤 상황에도 차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동국대경주병원은 25개 진료과목과 332개 병상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경주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병원인 동국대 경주병원은 전공의 3명(신규 1명, 연차승급 2명)이 지난 5일 자로 계약 및 근무를 재개했지만 이번달 계약 예정이었던 의료진 14명(인턴 8명, 레지던트 6명)이 계약을 포기한 데다 기존 레지던트 1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동국대 경주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과별 전문의가 순번제로 응급실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며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인력 부족으로 의료진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남아 사명을 다하는 의료진께 감사하다”며 “시민들께서도 중증·응급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경중 환자는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주시 및 경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 문을 여는 의약기관 정보

를 게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의료기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지역 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 중인 지역 종합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 알아두면 유용한 경주시 인구정책

‘최대 30만원’ 돌려받으세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 확대

경주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를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준다.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D))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이다.

또 연소득이 청년 5000만원, 청년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조건도 갖춰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인원 종료 시까지 경북 청년e플립 홈페이지나 시청 인구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이내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경주. gov.kr)를 참고하거나 인구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054-760-27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가 중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크다”라고 말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 학습서비스’

교육청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
신규 학습코칭단 오리엔테이션

경주교육지원청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6일 경주·영천 지역의 신규 학습코칭단 역량강화를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학습코칭 첫 단계 끼우기, 학생 특성에 따른 보드게임 활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오는 13일 경주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3월 사례회의 및 워크숍을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학교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습코칭단을 대상으로 매월 사례회의와 수업지원방문, 워크숍 등을 통한 학습코칭 역량 강화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김시용 교육지원과장은 “경주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에서도 학습코칭단들과 함께하며 학습코칭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경주기자seoul1411@hanmail.net

시, 전기차 649대 구입비용 지원... 89억 투입

승용차 1390만원·화물차 2118만원
접수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

경주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승용차 460대를 비롯해 화물차 182대, 승합(버스) 7대 등 총 64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하반기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지원규모는 462대(승용 314대, 화물 144대, 승합 4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하반기 지원규모는 187대(승용 146대, 화물 38대, 승합 3대)이다. 대당 보조금 단가는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승용차 313만원~1390만원, 화물차 399만원~2118만원 차등 지원된다. 단 전기택시 구입의 경우 국비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원시스템의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한편 경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2021년 356대(61억1320만원) △2022년 795대(지원금 119억640만원) △2023년 582대(지원금 88억393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미세먼지 저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023대 규모... 27일까지 모집
제작일자 오래된 순으로 선정

경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이달 27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44억원의 예산을 들여 △5등급 경유차 1485대 △4등급 경유차 500대 △건설기계 50대 등 총 2035대 규모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굴착기 등이다.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경주. gov.kr)를 참조하거나 환경정책과(054-779-638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함과 더불어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는 등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새로워진 대구 도심, 활기 넘치는 도시 재도약

대구신보, 금융소외층의 위기 극복 큰 도움

도심캠퍼스 1호 지정·개관식 공실 활용한 이색 공간 선보여 13개 대학·29개 프로그램 선정 젊은층의 문화·체험 공간 구성



대구시는 도심 캠퍼스타운의 첫 번째 사업지로 시에서 자체 매입한 (구)관계스트하우스(중구 서문로1가)를 도심캠퍼스 1호로 지정하고 6일 개관식을 가졌다.

시는 동성로 등 도심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7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도심 공실을 젊은이들의 문화와 체험 위주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는 '도심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공실 상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창업과 인력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구시와 지역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심의 공실을 통한 강의실 및 현장 실습실로 활용하는 지역대학 통합 캠퍼스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3일 홍준표 시장과 지역 12개 대학 대표들이 도심캠퍼스

착수 선포식을 가졌고 약 4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6일 도심캠퍼스 1호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도심캠퍼스 1호관으로 지정된 (구)관계스트하우스는 적산가옥과 1950년대 한옥 구조 건물로 대지면적 442.6㎡, 연면적 286.8㎡의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이후 재즈바&게스트하우스로 활용돼 해외 배낭여행객과 타지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등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대구시는 올 1월부터 본격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정형화된 교육 공간이 아닌 강연과 체험활동 중심의 창의적 교육 공간으로 조성했다.

지난해 11월 캠퍼스 참여대학을 모집한 결과 총 13개 대학의 60개 프로그램이 접수됐으며 대구시와 선정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최종 13개 대학 29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프로그램은 교과 과정과 비교과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학교별 특색에 따라 버스킹, 보컬 레슨, 로컬 창업, 주일

리 크리에이터, 근대 건축투어, 도심캠퍼스 서포터즈 등 다양한 과정에 연간 25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도심캠퍼스는 서로 다른 대학, 전공들이 융합돼 대학 간 상생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도심 공동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열쇠"라며 "도심캠퍼스 사업을 통해 동성로가 다시 한번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청춘의 거리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서민대출 보증 규모 약 40% 확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지원책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6일 국내 경기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공급 목표를 전년 대비 약 40% 확대한 120억원 규모로 설정해 저신용, 저소득층, 무등록 소상공인, 인적용역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자영업자 햇살론 II)'는 기존의 자영업자 햇살론과 달리 보증비를 확대해 통한 대출금

리 인화로 서민의 금융비용을 경감한 특례보증상품이며 약 4-6.5%의 금리(개인별 상이)가 적용되고 대표자 신용 점수 및 업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지원 및 연 0.8%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우 이사장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신용·저소득자분들께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증상품의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로 문의하면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2030년까지 1084억원 투입 배출량 일 84kg 감축 효과

대구시는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 일환으로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그동안 비가 올 때마다 하수가 넘쳐 하천으로 흐르거나 도로, 교량 등의 오염물질 유입을 해결하고자 환경부와 협의해 대구시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084억원을 들여 군부대 이전지역 후적지 2곳(캠프위커, 캠프조지), 신청사 이전예정지 등에 저영향개발(LID) 등 각종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배출되는 총인(T-P)의 양을 일 84kg 정도 저감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 50%에 불과한 국비 지원이 앞으로 70%까지 증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시, 자율혁신 추진·민관협력 활성화 노력 결실 맺다

지자체 혁신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택시업·행복기숙사 등 높은 평가 현장 중심 정책으로 시민 편의 UP

대구시는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등 혁신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

평가를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혁신역량,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민첩한) 정부,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에서 평가를 시행했다.

대구시는 지난 한 해를 시민이 힘차게 다시 일어서는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삼고 미래 50년을 향한 혁신 노력을 지속해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자율혁신 추진성과 분야의 대표 우

수사례인 '공공형 택시업(대구로택시) 활성화' 사업은 지역 택시업계의 호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과 승객호출료 무료, 마일리지 적립, 안심귀가 서비스와 같이 대구로택시 이용 시민의 편익을 크게 확대한 점에서 혁신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운영', 민관이 함께 지역 대학생의 주거 복지 향상, 교육환경을 개선한 대구행복기숙사 개관, 타지역 청년 대구 귀환 경로별 지원체계 구축·운영,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으로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에서 혁신노력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구시는 기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3대 도시 위상 회복을 위해 이뤄 왔던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대구만의 참신한 정책,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시민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 용역 중간 보고회

군위군은 지난달 29일 군수와 각 부서장 그리고 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결정 및 기본 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점검 및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파크골프 환경을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의견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의흥면 이저리 산 115-11번지에 총면적은 31만2881㎡로 180홀 조성을 최종 목표

로 하고 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골프장 코스를 초급자, 중·상급자, 최상급자로 구분 조성해 고령자·어린이 및 가족단위 방문객부터 숙련자들까지 아우를 수 있다. 무엇보다 방문객들이 난이도가 다른 다양한 코스를 선택해 경험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동 중 간단히 음료를 마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스타트하우스와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등도 갖춰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달성 '사랑의 교실' 문 활짝 군 청소년상담센터, 공모사업 지정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4일 대구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공모사업에 선

정됐다고 밝혔다.

'사랑의 교실'은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이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모사업이다.

올해는 대구시 내 청소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받아 최종적

으로 10개소가 지정됐으며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6년 연속 위탁 운영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사랑의 교실'은 10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및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3일 동안 진행되며, 비행청소년의 긍정적 자아형성을 위한 자기탐

색, 비행예방교육, 희망적인 미래 설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지향 센터장은 "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상담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충찬 기자gs13000@naver.com

살국유사의
새로운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화사한 봄 축제로 물드는 안동으로 떠나볼까

봉화 양봉농가, 병해충 피해 최소화 '힘' 진드기·진균성·바이러스 등 질병 구제약품 무상으로 공급

27일 Spring 팡!팡! 벚꽃축제 5월 차전장군노국공주 축제 등 지역 고유성 담은 행사 잇달아



만물이 움트는 봄 안동시의 축제는 안동벚꽃축제부터 시작된다.

오는 27일부터 5일간 'Spring 팡!팡!'을 주제로 낙동강변 벚꽃길과 탈춤 공연 일원에서 벚꽃축제가 열린다.

낙동강변 벚꽃길은 해마다 봄이 되면 수령 50년이 넘는 우리나라 고유품종인 왕벚꽃나무 수백 그루가 만개해 절경을 이룬다.

이에따라 시는 벚꽃 군락지를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과 공연,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 할 예정이다.

우선 벚꽃 터널과 모빌 등으로 이뤄지는 벚꽃 포토존은 흐드러지게 핀 연분홍 벚꽃 물결 아래로 카메라 앵글이 어디를 비춰도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신신나는 놀이동산 스피리마켓 & 체험존 △먹거리존 △벚꽃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5월에는 안동이 가진 전통문화

의 특색을 바탕으로 한 이색적인 축제가 열린다.

지난 2023년 50년 역사의 안동민속축제를 탈춤축제와 과감히 분리하고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로 축제의 명칭과 내용을 모두 획기적으로 변신했다.

특히 올해는 축제 총감독제도를 도입해 민속놀이를 K-PLAY로 콘텐츠화하고 5월 3일-7일 5일간 구안동역과 탈춤공원에서 펼쳐진다.

'오! 상상이상 안동에서 놀자!'를 슬로건으로 민속놀이를 재해석한 놀이 콘텐츠를 축제장에서 게임으로 즐기며 승점 포인트를 획득해 선물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차전장군랜드와 노국공주랜드에서는 20여가지의 게임콘텐츠와 연회 공연, 연극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퍼포먼스랜드에서는 집단 참여놀이와 안동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를 비롯한 차

전놀이 대등장장이 관광객 참여형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축제는 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그 도시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되며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계기가 된다"라며 "안동이 지닌 고유성을 바탕으로 재해석해 안동 관광의 마중물로서 '안동이 만들고 세계가 즐기는' 축제로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오명수기자oms7227@nate.com

봉화군이 꿀벌의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군에 신고된 재래종(토종벌) 및 개량종(서양벌) 꿀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 구제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군은 꿀벌이 월동을 마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꿀벌응애류(진드기), 노제마병(진균성), 낭충봉아부패병(바이러스) 등 3개 질병 구제약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4600만원의 예산으로 꿀벌응애류 2만1270개, 노제마병 676병, 낭충봉아부패병 748포의 약품

을 구입해 읍·면 사무소를 통해 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꿀벌 사육업 등록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꿀벌은 봉군(colony)이라는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군집생활을 하는 곤충으로 질병이 발생하면 전파가 빠르고 치료가 힘들어 농가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져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꿀벌의 폐사가 늘고 있으며 꿀벌이 자연에서 충분한 화밀을 수집하지 못해 양봉농가의 수익 창출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희영기자jhy4430@hanmail.net

문경 보건소 "2024년엔 담배 꼭 끊으세요"

문경시 보건소는 6일 흡연자를 위한 적극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금연 실천 유도와 흡연을 감소를 위해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해 들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가 2개월 만에 100명이 신규등록 했다.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위한 금연 대상자 등록 관리, 1대 1 개인별 상담,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제공, 6개월 금연 유지 시 금연성공용품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화나 문자 등을 활용

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흡연 및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실천율을 높여 평생 금연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금연 희망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학교 등 지역사회 내 직장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깨끗한 사무공간 조성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진행하고 있다.

김세현기자hyun0085@daum.net

영양장학회, 초·중·고·대학생 학비 부담↓ 학력증진↑

반값 장학금 등 8개 분야로 모집 29일까지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지역내 초·중·고 및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경감과 학력증진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장학회 사무국(영양군청 자치행정과)에서 '2024년도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난 1997년 지역 내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영재장학금'을 지급한 이래 해마다 수혜범위를 확대해 온 장학사업은 올해의 경우 △고등학생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반값) △대학생 장학금(재학) △대학생 장학금(영양사랑) 등 8개 모집 분야로 나눠 총 38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학생 장학금(반값)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 부모 및 보호자가 연속해 3년 이상 영양군에 거주 중이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적제한 없이 정규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주소 제한을 만족할 경우 대학생 장학금(재학) 지원 대상으로 성적제한 없이 정규학기당 50만원(연간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김경태기자tae66611@naver.com

분야별 신청 기준 및 지급금액은 규정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다.

오도창 이사장은 "영양군의 미래 희망인 지역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자격이 갖추고도 시기를 놓쳐 신청을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주위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경태기자tae66611@naver.com



예천 장난감도서관, 영유아 프로그램 '호응'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 장난감도서관 회원 및 지역 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장난감도서관의 놀이지도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특성·연령에 따른 다양하고 효과적인 놀이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양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고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연령에 따라 3-4세, 5-7세 반으로 구

성해 매월 선정된 영유아의 인지·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1월에는 영어스토리텔링, 2월에는 체육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청방법은 프로그램별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054-655-8886)로 문의하면 된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영주농업창업지원센터, 소백산귀농드림타운 9번째 새식구 맞아

영주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소백산귀농드림타운'이 6일 입교식을 갖고 지난 2016년 개소 이래 아홉 번째 새식구를 맞았다.

이날 입교식에는 영주시귀농귀촌연합회와 교육생 및 가족 30세대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귀농 생활의 시작을 기념하고 한 해 동

안 터전이 될 텃밭 및 비닐하우스를 배정했다. 입교생 30세대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등 수도권 19세대, 대구, 울산 등에서 11세대가 입교하는 등 대도시 거주민들이 영주시로의 높은 귀농 열기를 확인했다.

'소백산귀농드림타운'은 영주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

으로 일정 기간의 농업교육을 거쳐 안정적인 이주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시설은 교육생 숙소, 텃밭, 교육관, 실습농장, 시설하우스 등 예비귀농인들의 농업전문 기술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

교육생들은 우수한 귀농 인프라를 바탕으로 앞으로 10개월 동안 관습작

목 전문기술교육, 실습, 현장체험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280시간 정도 받게 된다.

시는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귀농 정책과 현지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역 융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해 '유턴 없는 소백산귀농드림타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윤여성기자bk01410@naver.com

봉화군

기부자

지역생산자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액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상주 옴부즈맨, 시민 고충 해결사 역할 '톡톡'

도로·환경·복지 등 다분야 활약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불편 해소 市 "내실 있게 운영해 권익 보호"

상주시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행정개선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에서 처음으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작한 '옴부즈맨제도'는 그동안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국 80여 지자체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발간한 '2023년 옴부즈맨 운영 상황 보고서'에는 옴부즈맨 활동상황과 고충민원 처리사례들을 소상히 담



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도로,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1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35건(69%)을 해결하고 10

건(20%)은 법령이나 규정상 해결이 어려운 것이며 상담도 30여건이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정보공

개란)에서도 공표된 내용을 볼 수 있다.

옴부즈맨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 지식은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재역할로 행정과의 갈등이나 마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답답함을 해소해 좋은 반응과 함께 자리매김했다.

이범용 옴부즈맨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여 시민들이 겪는 답답함과 불편 해결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영석 시장은 "옴부즈맨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시민의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허장욱 교수, 꾸준한 선행과 따뜻한 나눔

금오공대 발전기금 500만원 기탁 현재까지 기부액 2600만원에 달해



허장욱(사진) 구미 금오공과대학교 교수가 지난 5일 대학 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허 교수의 발전기금 기부액은 현재까지 약 2600만원에 이르며 이번 발전기금은 금오공대 학군단 및 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허장욱 교수는 올해 초에도 전국 30여개 보육원에 1000만원 상당의 쌀과 의복을 기부한 바 있다.

특히 보육원 기부부터 이번 발전기금은 허장욱 교수의 둘째 자녀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눔에 동의해 진행됐다.

허장욱 교수는 "이웃을 생각하고 나

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가족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나눔과 배려를 생활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칠곡군, 실감나는 현장 훈련으로 산불 대응 역량 '쑥쑥'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훈련 전개 차량 진화전략 공유·협력 강화

칠곡군은 지난달 28일 북삼읍 송오리 임도 일원에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대구시와 함께 남부지방산림청 등에서 도입한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 진화전략 공유와 협업체

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북삼읍 송오리 임도변에서 발화한 산불이 주변 산림인 김천시 남면 부상리 일대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칠곡군,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대구시 등 인원 50여명과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 일반진화차량

1대 등이 동원돼 실제 산불발생을 가정한 진화훈련으로 진행됐다.

이날 좁은 임도에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활용 방법, 진화 호스 장거리 전개 및 살수 훈련, 고성능 산불진화차 진화시스템 운영 조별 개인 임무 숙지 훈련 등 실제 대형산불 발생 시 투입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활용 방법과 기계화 시스템의 실전 훈련을 통해 산

불 진화 능력을 강화했다.

한편 칠곡군은 앞으로 산불취약 시기인 봄철을 맞아 산불진화 능력 배양과 더불어 선제적인 산불예방 활동의 실시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산불방지 대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김천시, 사인머스켓 알 슈기 과정 모집·접수

19일까지 선착순 500명 신청 인력 양성·인건비 안정 기대

김천시는 오는 4월 사인머스켓 알 슈기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대상으로 농촌 인력지원 기술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 신청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오는 19일까지 선착순 500명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단 2023년 교육 참석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해당 교육은 농촌 전문인력 기술교육은 지역 내 사인머스켓 정에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농촌인력 외부 의존도를 낮춰 인건비 안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사인머스켓 재배 전략, 알 슈기 집중교육 등 이론 및 실습 교육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내 하우스 농가에서 실제 사인머스켓을 활용해 실습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농업인이 농촌인력으로 투입될 때 실습 교육 경험을 토대로 큰 무리 없이 농작업에 적응할 수 있게 교육 과정을 수립했다.

권명희 농촌지도과장은 "이번 농촌인력지원 기술교육을 통해 지역 내 급증한 사인머스켓 신규 재배 농업인과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이 전문성을 키워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수 기자kgs514@naver.com

외식업중앙회 성주지부, 고품격 식문화 정착해 먹거리 도시 조성 '일조'

2024년도 제52회 정기총회 개최 표창·장학금 수여, 결의 등 다져

(사)한국외식업중앙회성주군지부는 지난 5일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이병환 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도지회장, 경북도시·군 외식업지부장, 대의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식문화의 품격을 살리는 외식문화 조성에 힘쓴 회원 13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대의원 자녀 중 모범학생 7명에게는 ㈜금복주, 성광주류, 성주세무회사무소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두가 앞장서기로 결의를 다졌다.

이병환 군수는 "외식업이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 제공, 진철한 서비스와 청결한 위생관

리로 성주군의 먹거리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특히 "오는 10일 '2024 성주참외 전국마라톤대회' 및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2024 성주참외

생명&문화축제'에 모든 외식업소가 성주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성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i515@daum.net

민주평통 고령협, 21기 자문·보궐위원 위촉

문광주·박경숙·이덕영씨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령군협의회가 지난 5일 제21기 보궐·자문위원 위촉식과 1분기 정기회의를 동시에 개최했다.

이번 보궐위촉식과 1분기 정기회의는 이남철 군수, 기세록 제21기 민주평통 고령군협의회장 등 자문위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대통령 국무회의 자료 상영 △협의회 구성 보고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1분기 정기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기회의는 자문위원들 간 소통한 결과를 토대로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 각 협의회에서 수립한 의견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접수해 국가 정책 건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남철 군수는 "제21기 민주평통 고령군협의회 자문위원으로 보궐 위촉되신 세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민주평통 고령군협의회 활동에 있어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령군협의회 보궐 위촉 자문위원은 △문광주 고령군재향군인회회장 △박경숙 고령군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이덕영 ㈜광명건설 대표이다.

김일호 기자hoyai515@daum.net

아이비투어
대표 김재욱

경주시 용강동 1533
에이치타워 204호
☎ 0507-1374-7755

강산렌탈
대표 최성훈

경주시 천북면 동산덕산길 5
☎ 054-776-9310

마호기획광고
대표 이재희

☎ 010-3857-1111

울릉군, 주민 체감 '생활밀착행정 구현' 앞장

생활민원 신속처리반 운영키로 취약층 등 불편사항 현장에서 해결 영업용·비주거용 시설 이용 제한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울릉군은 오는 18일부터 일반주민들을 비롯한 취약계층,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가구 등에 생활 불편사항을 신청 받고 즉시 방문해 현장에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신속처리반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해 남한권 군수의 의지를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올해 3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팀에 생활민원 신속처리반 업무 신설 및 인력 3명을 배치해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생활민원 신속처리반은 군내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이 29.4%에 달하는 현실에서 기본적인 일상과 직결되는 전등, 콘센트, 스위치, 수도꼭지, 샤워기를 비롯한 소규모 집수리 등의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을 직접 찾아가 처리



하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다. 생활민원 신속처리 서비스는 가구당 연간 6회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주민은 재료를 본인 부담하게 되며 취약계층, 장애인, 70세 이상 가구 등은 회당 5만원 이내 무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단 영업용 시설과 비주거용 시설 등

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생활 불편사항이나 민원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군청 민원실 방문 및 전용전화(054-791-3001)로 접수할 시 담당자가 현장으로 출동해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준다. 남한권 군수는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들은 작은 불편사항을 직접 해

결하기 어렵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울릉군 생활민원 신속처리반이 사회적 소외계층의 불편을 해결하는 믿음직한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고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영 기자ast3000@naver.com

"K-배터리 초격차 경쟁력 확보로 전지보국 포항 만든다"

시, 2050 전문가TF팀 간담회 투자유치 플랫폼 유치 등 박차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 '기대'

포항시는 6일 '인터배터리 2024'가 열리고 있는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2050 전지보국 전문가TF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50 전지보국 전문가TF팀 간담회'는 올해 두 번째 열리는 간담회로 급변하는 국제경제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핵심 추진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많은 수도권 전문가들을 비롯해 대학, 국책 연구기관,

협회, 기업 등 이차전지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글로벌 보조금 정책 변화, 전지차 수요 둔화 등 이차전지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현안과 이슈를 논의하고 국내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선도도시 포항 조성을 위한 사업 및 과제 발굴, 분야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차전지 산업은 외부 경제의 변화로 수요가 급변하는 산업으로 분야별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포항시의 선도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포항시는 특화단지 이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투자유치 플랫폼을 유치해 이차전지 투자특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으며 산학연관 연대와 협력을 통한 건실한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포항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해 전지보국 포항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향후 추진사업에 현장 적용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세계 각국이 이차전지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

을 걸고 있는 지금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차전지 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지보국 포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 박태성 배터리협회회장을 만나 전지보국 도시 포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K-배터리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인터배터리 현장을 찾아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백 회보를 이어 가고 있다. 신현기 기자hshin98@naver.com

울진, 2025년도 국비 확보 전략보고회

59개 사업, 1485억원 규모

울진군은 지난 5일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손병복 군수 주재로 국경과제와 군정 방향을 연계한 신규·

공모사업 등을 발굴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59개 사업의 국비 1485억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신규사업은 △하이브리드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원전 전력 연계 저온수전해 청정 수소 생산 및 운영 실증기술 개발 △울진군 수소 도시 조성

사업 △측변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 등 23개 사업이며 내년도 건의액은 282억원이다. 또한 울진해양치유센터 건립,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울진읍 중심지활성화사업, 온정-원남간 국지도 건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36개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차질 없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가투자예산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생활 SOC 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손병복 군수는 "사전이행절차 및 해당조건 등을 철저히 준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주 기자ksj09102@naver.com

영천시, 수소경제 활성화·탄소중립 실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공모 선정... 관련 시설 구축

영천시는 지난 5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4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고집화 및 개질화를 통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은 올해 1월 환경부에서 공모 안내를 했으며 2월 공공 및 민간 부분으로 각각 신청을 받아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그간 영천시는 연초 인사이동 후 짧은 시간임에도 타 지자체보다도 훨씬 빠르게 준비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30억원(국비 91억원, 도비 27억원, 시비 12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청정수소 생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주요 설비로는 바이오가스 고집화 설비, 수소 개질설비, 수송시설(튜브트레일러) 등이며 향후 수소충전소(30억원)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경북도 내에는 바이오가스를 통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없어 영천시에서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면 인접한 도내 수소충전소에 안정적인 수소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함은 물론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 등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식열 기자jisy9220@hanmail.net

경산, 도시농업 공영농장 분양대상자 교육

농장 이용법·농촌 체험 등 구성

경산시는 도시농업 공영농장 분양대상자 294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공영농장 운영수칙을 안내하는 분양대상자 의무교육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했다. 교육은 도시농업 공영농장을 분양받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공영농장을 소개하고 이용 방법, 전반적인 경산시 도시농업에 대한 소개, 치유농업, 농촌 체험 등 도시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농업 관련 정보로 구성해 진

행했다. 신전동 241-1에 조성된 도시농업 공영농장은 총 1.27ha 규모로 텃밭 204구획(12㎡·224구획, 21㎡·70구획)과 편의시설인 주차장, 관리장고, 이동식 화장실 등이 마련돼 있다. 텃밭 작물은 친환경적인 농사 방법으로 재배하며 경산시는 분양자들에게 기초적인 재배 기술 교육과 작물 재배에 필요한 각종 친환경 퇴비와 농기구 등을 제공할 방침이며 올해 개장일은 7일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정 동 식

경주시 원화로 285 3층

☎ 054-771-3344

한국대중음악박물관

부관장 도 인 숙

경주시 엑스포로 9

☎ 054-776-5502

윤영선 조리명인의 평양갈비

경주시 원효로 105번길 10

☎ 054-774-5445



청송여단협, 모두 행복한 지역 만들기 앞장

2024 정기총회서 사업계획 논의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노인여성회관 2층 회의실에서 16개의 여성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여성단체협의회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영희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여성단체협의회는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 모두가 행복한 청송 만들기에 앞장서

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는 16개의 여성단체 153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바자회, 인제육성 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캄보디아 노동부 장관, 의성 농업기술 '감탄'

계절근로제도 관련 공무원 방문
옥산면 소재에 근로자 숙소 점검
스마트팜 단지 견학·팻월드 관람
지역 내 인력난 해소·교류 증진



의성군은 캄보디아 행 추어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및 응웨이 릿 국무장관 등 캄보디아 계절근로제도 관련 공무원 12명이 지난 5일 의성군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등은 지난해 입국했던 캄보디아 공공형계절근로자 25명이 5개월여간 지냈던 옥산면 소재 공동숙소를 점검했다. 그 후 의성청년탈기 스마트팜 단지를 견학 후 팻월드를 관람하며 의성군의 선진 농업기술과 반려동물 문화에 감탄했다.

한편 의성군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는 지난 2019년에 외국인 계절근로

자 MOU체결을 맺은 뒤 지난해 캄보디아 근로자 118명을 도입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농업정책과 농업인지원팀장 및 공공형계절근로센터를 운영하는 세의성농협(조합장 임탁), 서의성농협(조합장 이재섭)으로 구성된 실무단들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산하 외국인력송출

청에 방문해 올해 공공형계절근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면접 선발했다.

공공형계절근로자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에는 MOU 체결형식으로는 230명이,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형식으로는 17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지역 내 농촌인력 부족 문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군수는 "지역 내 농가의 일손 부족 현상이 해가 거듭될수록 심화되고 있다"라며 "캄보디아 계절근로자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농가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역 내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영주, 전통 연희체험으로 아이들 예술성 UP

세로토닌 키즈 참여 275명 모집

영주시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통연희 체험교육 '세로토닌 키즈'에 참여할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5-7세) 275명을 모집한다. '세로토닌 키즈'는 전통 놀이·유희 체험으로 유아들의 예술적 감성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인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주청소년문화의 집 2관 2층 공연연습장에서 오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 화요일을 제외한 주중에 진행된다.

15일은 오후 1회, 17일부터 24일은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총 11회(회당 25명 참여)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개인이 아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자우편(childy.j@korea.kr) 접수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아동청소년과(054-639-6084)로 문의하면 된다.

강매영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전통연희 체험교육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으로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활동과 창의적인 활동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여성 기자bk01410@naver.com

봉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소천·석포·재산면 건축물 소지자
이달 말까지 면사무소 방문 접수

봉화군은 이달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비비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어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

지원 설비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주민수익형 발전소 등 4가지 설비가 있으며 각종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해 전기성, 연료비 등을 절감해 간접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명호면, 상운면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

다.

오는 2025년도 사업은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을 대상지로 선정해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수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 2월 한 달 동안 3개면의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에 건축물이 소재하고 해당 신청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3월 말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방문해 신

청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완료 후 오는 4월부터 신청자별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 사업량, 사업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6월 중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지원 보조사업 중 주민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향후 사업을 통해 봉화군 전역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어르신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울릉자원봉사센터, 대청소 봉사... 모니터링 계속

울릉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 건강 약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인가구 어르신택 대청소 봉사를 실시했다.

집 안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 및 필요 없는 물건들로 인해 발 디딜 틈도 없고 악취도 심해 미관 뿐 아니라 어르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원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안, 베란다, 화장실, 주방, 냉장고까지 모두 깨끗하게 정리 정돈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자체와 협력해 주거환경개선 활동으로 취약계층의 집 정리 및 대청소, 도배 및 장판교체, 집수리 및 도색,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 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숙희 센터장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



활하시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마을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행복한 울

릉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더블에이치플랜

DHP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병희

Mobile : 010-3517-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칠곡호국평화기념관, 6·25 특별 사진전 개최 전쟁 당시 韓 수호에 기여한 튀르키예군의 헌신 기념 위해 마련

칠곡군 소재 6·25전쟁 전문박물관인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6·25전쟁 튀르키예군 특별 사진전: 칸 카르데시가 열리고 있다.

올해 특별전의 일환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기념관 중앙홀에서 운영되는 이번 전시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튀르키예군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관객들은 이번 전시에서 6·25전쟁 기간 중 촬영된 튀르키예군 사진들을 둘러보며 우리에게 형제의 나라로 잘 알려진 튀르키예에서 온 장병들의 활약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에 따라 전시 타이틀에도 '피로 맺은 형제'라는 의미의 튀르키예어 단어 '칸 카르데시'가 활용돼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재욱 군수는 "이번 전시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주한튀르키예대사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람객들께서 전시를 둘러보며 튀르키예군을 비롯한 6·25전쟁 참전 유엔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054-979-5512)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주말마다 NEW 공연 펼쳐지는 '영주 선비세상'

6월까지 어린이 상상극장 통해 삼양동화·호랑이 형님 등 공연

영주시 선비세상은 오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일요일 '어린이 상상극장'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해에 이미 작품성과 재미를 인정받은 어린이 뮤지컬 '삼양동화'와 새롭게 추가된 극단 민들레의 소리극이 진행된다.

'삼양동화'는 고전 동화를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어린이 뮤지컬로 매주 다른 작품이 펼쳐진다.

백설공주는 '거울을 깬 왕비', 헨젤과 그레텔은 '헨젤과 새엄마', 아기돼지 삼형제는 '아빠돼지 삼형제'로 새롭게 각색돼 기존 고전 동화 속에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 주는 이야기를 선보인다.

인기 뮤지컬 '마당을 나온 암탉'을 만든 극단 민들레는 이번 상상극장에서 소리극 '돈도깨비'와 '호랑이 형

님'을 공연한다.

'돈도깨비'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도깨비 이야기들을 하나로 녹여 만든 작품이다. '호랑이 형님'은 어린이날을 만든 소과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에 소리를 붙여 우리 가락과 우리 말의 맛을 신명 나게 살렸다.

'어린이 상상극장'은 선비세상 한음 작은 음악당에서 진행되며 선비세상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선착순 입장 관람할 수 있다.

선비세상 관계자는 "가족 모두가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비세상이 제공할 다양한 볼거리와 색다른 경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은 선비세상 인스타그램 공식계정(sunbeeworld.official)과 홈페이지(www.sunbeeworl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여성 기자bk01410@naver.com

대구시립예술단, 도심서 문화로 '휴식·치유'

신천 수변무대·동성로 일대서 3월~10월 토요일마다 펼쳐 클래식·국악·무용·연극 선사

대구시는 대구시립예술단의 시민밀착형 공연을 통해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문화와 예술로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신천 수변무대와 동성로에서 '토요 시민콘서트'를 펼친다.

대구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모든 예술단이 참가하는 '토요시민콘서트'는 상·하반기로 나눠 3월~7월, 9월~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신천 수변무대, 동성로 28아트스퀘어·관광안내소 앞 등에서 총 20회 진행된다.

첫 무대는 오는 23일 오후 7시 시립교향악단과 시립국악단에서 각각 15명이 연주자로 나선다. 시립교향악단은 신천 수변무대에서 '헨델의 미뉴에트', '필로어의 라스스 트롬본' 등 금관과 타악 앙상블의 화려하고 강렬한 사운드로 클래식 곡을 편곡한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며 올 한 해 시민과 함께 할 '토요시민콘서트'의 힘찬 서막을 연다. 동성로 관광안내소 앞에서는 시립국악단의 국악 관현악과 국악가요 무대로 꾸며진다. 신라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된 화랑정신을 역동적인 선율로 표현한 국악 관현악곡 '화랑'과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양방언의 대표곡 'Prince of Jeju', 전통 음악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신밧놀이' 등 친숙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토요시민콘서트'는 가족과 함께 산

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약속을 기다리는 신천과 동성로에서의 공연을 통해 시민에게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을 대표하는 시립예술단의 다채롭고 품격 있는 공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래식부터 국악, 무용, 연극 등 시민들의 다양한 취향과 관심을 충족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자세한 일정과 공연 정보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관광 통합정보

플랫폼, 대구문화예술회관 및 콘서트 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민들이 신천과 동성로에서 열리는 시립예술단의 토요 상설공연을 통해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도심 속에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공연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함께 호흡하는 공연으로 더욱 사랑받는 시립예술단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진경산수화에 깃든 정신, 현대 작가 수묵화로 '재해석'

안동예술의전당, 내달 14일까지 '떡발 畫답하다展' 37작품 선봬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주관하는 기획전시 '떡발 畫답하다' 전시가 오는 4월 14일까지 휴관일(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상설갤러리에서 무료로 개최된다.

'떡발 畫답하다'는 진경산수화 대

가인 겸재 정선(謙齋 鄭勳, 1676-1759년)이 활동한 시기인 17세기 표기에 따라 '떡발'의 제2음절 종성 'ㅈ'을 'ㅊ'으로 표기한 것이다. 인물정신과 우리 실경의 아름다움을 담은 진경산수화의 정신을 계승하며 현대 작가들이 수묵화를 재해석해 답한다는 의미에서 '畫답하다'라는 이름을 붙였다.

'2024년 기획전시 떡발 畫답하다'는 수묵비엔날레 및 아트페어에서 인지도 높은 수묵작가 9명과 특별지역초

대작가 1명 등 10명의 작가 37점으로 60호~120호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묵비엔날레 참여작가들로 박경목·박능생·박병일·박순철·박종걸·박창수·우용민·이준하·임재훈·김대원(특별지역초대작가) 작가가 자연과 도시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표현한 실경 위주 작품으로 작가의 정서를 농담에 따라 표현한 입체적인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가

까이 있어 지나칠 수 있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로 생각하며 작가의 동시대적 해석을 바탕으로 전통 수묵 화풍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시 관람은 예약과 관람료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며 단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한수원-경주문화재단, 트롯 콘서트 열어

내달 24일 오후 6시 예술의전당

한수원자원력(주)과 (재)경주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하는 '한수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4월 공연으로 '2024 콘서트 우리소리'가 오는 오는 4월 24일 수요일 오후 8시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현호 지휘자가 이끄는 영남국악관현악단의 '프런티어(양방언)' 연주로 공연의 시작을 알

린다. 이어서 미스터트롯과 울산 이미자로 유명한 '김희재', 히든싱어와 미스트롯 2위의 독보적 가창력의 소유자 '정미애', 'Let it go' 커버로 이름을 알리며 미스트롯2 TOP7에 빛나는 '은가은'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트렌드에 따른 연주방식의 변화와 다양한 시도로 전통음악을 비롯해 국악가요, 사물, 무용, 대중가요 등을 통한 영남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3인의 트로트 가수의 노래로 특유의 감성과

탁월한 가창력, 화려한 무대 매너 등이 조화를 이룬 공연으로 관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본 공연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티켓 오픈으로 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티켓가는 R석 5만원, S석 4만원으로 경주시민과 경주소재 학교 재학생 및 재직자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rts.kr) 또는 문의 전화(1588-492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경규 기자seoul411@hanmail.net

칠곡군
CHILGOK GUN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살리고~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최적지는 칠곡!!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닌 칠곡군을 응원하는 누구나
-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모바일)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대면접수(※신분증 지참)
-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제공
- 답례품**
농특산물, 전통·가공식품, 지역상품권 등

QR 코드: 기부 바로가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문의 | 칠곡군 세무과 ☎ 054-979-6244

상주, 신선농산물 수출검역요건 교육



상주시는 지난 4일 2024년 신선농산물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농림축산분부 구미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와 함께 상주실내체육관(구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600여명이 참석한 배, 포도 생산농가 단체집합 교육이다.

시는 이달 동안 총 2차례 걸쳐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의 주요 신선농산물 수출 품목인 배, 포도 품목에 대해 총 1000여명의 수출 생산자들이 교육에 참석할 예정이다.

임창완기자changwan12@naver.com

성주치매안심센터, 행복한 노년 응원



성주군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선별 검사 결과 정상군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매주 1회 8회기 동안 '두근두근 뇌운동'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

'두근두근(頭筋頭筋)뇌운동'은 중앙치매센터와 조선일보가 공동 개발한 치매예방 인지훈련법으로 신문과 필기구만 준비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일상에서 재미있게 두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인지 기능을 강화시키는 문항들로 구성돼 있으며 4가지 영역(하루열기, 세상읽기, 쉬어가기, 추억담기) 총 24가지 과제가 제공된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다른 어떤 질병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치매교육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보건소 치매관리팀(054-930-819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일호기자hoyal1515@daum.net

안동 만학도들, 배움 향한 끝없는 열정

시, 초등학교 인정서 교부식 92세 어르신까지 연령 다양



"그 시절 누구나 그랬듯 가난한 어린 시절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보니 학교는 꿈도 못 꿔다".

안동시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초등학교 인정반 최고령인 92세 조계애 어르신의 말씀이다.

시는 지난 5일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을 수료한 43명의 늦깎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초등학교 인정서 교부식'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은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들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문해교사를 파견해 한글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는 초등학교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첫해 1년간 초등 1단계 1~2학년 과

정에 입학해 2년 차에는 3~4학년 과정, 3년 차에는 5~6학년 과정 등 3년간의 문해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공교육 초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학력 인정서를 수여한다. 특히 이반 교부식은 이달 안동시 직원 정례회 시 6개 읍·면지역의

대표 어르신들께 학력인정서를 교부해 안동시 직원들이 함께 축하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권기창 시장은 "3년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초등학교 인정서를 따낸 43명 어르신의 노력과 열정이 사회에 큰 귀

감이 되고 있다"며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된 한글배달교실과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디지털 새싹교실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문해교육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시민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오명수기자oms7227@nate.com

어용 신입 대장 "안전한 천북면 만들기 최선"

이취임식서 신념·포부 등 밝혀 각계인사 행사 참여, 격려 더해

경주시 천북면 자율방범대가 지난달 29일 대장 및 감사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김철우 면장, 이락우 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정원기 시의원, 박현하 경주시자율방범연합대장, 박기영 천북파출소장, 자율방범대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년간 천북면 자율방범대를 헌신적으로 이끈 양창권 대장이 이임하고 어용 대장이 취임했다.

양창권 이임 대장은 "그동안 자율방범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대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새로운 어용 대장님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가는 천북면 자율방범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어용 신입 회장은 "지역 파수꾼이자 면민 안전지킴이로서 본분을 다하고 우리 천북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



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천북면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안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민주평통 의성협, 자문위원 목소리 '하나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성군협의회는 지난 4일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국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박지혁 협의회장은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김천, 산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힘'



김천시는 지난 4일 산불 발생 시 산불 현장 지휘본부 일원화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실제와 같은 상황을 설정 후

현장 지휘 본부를 설치해 상황 관제시스템과 현장 영상 감시 체계 연결, 진화 전략도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금광수기자kgs5140@naver.com

동 정

직속기관장·교육장·국과장 회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7일 오후 5시 본청 응비관에서 열리는 직속기관장·교육장·본청 교육(정책)국·과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경주 도시재생 전문가·FGI 포럼



주낙영 경주시장은 7일 오후 2시 성건동주민자치센터서 열리는 경주시 도시재생 전문가 및 FGI 포럼에 참석한다.

안동 농산물 통합브랜드 운영 보고회



권기창 안동시장은 7일 오후 2시 시청 소통실에서 열리는 안동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기초조사 운영결과 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주시사회복지관 은빛대학교 입학식



박남서 영주시장은 7일 오전 10시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은빛대학교 입학식에 참석한다.

달성군립합창단 신규단원 위촉식



최재환 달성군수는 7일 오전 9시 40분 군청 문화복지동서 열리는 달성군립합창단 신규단원 위촉식에 참석한다.

성주 월항면, 웃놀이 한마음 대잔치



성주군 월항면은 지난달 29일 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2개 마을 이장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웃놀이 한마음 대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장과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면 행정복지센터와 이장협의회가 함께 준비했으며 이장과 마을담당 직원이 한팀이 돼 대항전을 치렀다.

박원일 협의회장은 "이장과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면이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다"고 했다.

배재영 면장은 "각종 일들로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껏 즐기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일호기자hoyal1515@daum.net



경상투데이 10주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송양수발전소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



청송군 부남면 하숙2리 새마을 부녀회는 지난 1일 봄을 맞이해 영농폐기물 수거 및 환경정화활동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하숙2리 새마을 부녀회 회원을 비롯해 이장, 청년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대청소 활동을 함께 했다.

하숙2리 새마을 부녀회는 해마다 새봄을 맞아 쾌적한 마을조성을 위해 마을주변에 버려진 폐비닐, 폐농약병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유태 이장은 “해마다 하숙2리의 깨끗한 환경을 가꾸는 데 참여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과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내 고향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고 말했다.

윤경희 군수는 “앞으로도 깨끗한 ‘산소카페 청송군’을 위해 주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영천, 관제 역량·대응력 강화 나서



영천시는 6일 각종 사건 사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초기 대응을 위해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제정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매뉴얼은 관제요원 근무수칙, 영상관제요령, 근무요령 등 총 3장으로 실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상황이 포착되면 체계적인 대응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영천시는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평상시와 유사시에 따른 관제요령을 세분화해 범죄상황이 의심되거나 위험 상황이 예상될 경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관련부서에 전달함으로써 빈틈 없이 대응하게 된다.

최기문 시장은 “매뉴얼 제정을 통해 관제요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고 시민이 안전·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열 기자jisy92920@hanmail.net

김광병 학장 “더 보람찬 대학생할 조성에 최선”

영천 노인대학장 이·취임식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은 지난 5일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노인대학생, 기관단체장 등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기 노인대학 입학식과 노인대학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흥겨운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노인강령 낭독, 학사보고, 노인대학장 이·취임사, 지회장 격려사, 참석 내빈들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대학은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 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영천시종합복지센터 1층 강당에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치매예방, 건강체조, 교통안전, 일반시사, 문화예술체험,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하게



진행되며 교육을 통해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관리에 관한 지식 등을 습득해 노인들의 삶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입학식과 함께 제15대 노인대학장 취임식 및 제16대 노인대학장 취임식이 함께 진행됐다.

김광병 신임 학장은 취임사에서

“노인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입학생들에게 “학장으로써 여러분의 노인대학 생활이 좀 더 알차고 보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기문 시장은 “이육만 전 학장님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신임 김광병

학장님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노인대학 입학생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면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석열 기자jisy92920@hanmail.net

청도 각북면 새마을3단체, 화합·발전 ‘다짐’

청도군 각북면 새마을3단체(회장 문용채)는 지난 5일 각북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새마을3단체 회원(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회)을 비롯한 지역 내 기관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3단체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 기관단체장의 인사 말씀, 전·현임 회원들의 교류 및 정기총회 등으로 각북면 새마을3단체의 화

합과 발전을 도모했다.

각북면 새마을3단체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 행사 지원을 시작으로 청도군의 굵직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문용채 신임 회장은 “살기 좋은 각북면을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며 새마을운동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종길 기자jik2929@naver.com



상주 화서면, 신바람 나는 청춘노래교실 개강



상주시 화서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화서면 복지회관에서 지역 내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춘노래교실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청춘노래교실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화려한 경력

을 가진 듀엣가수 이경자·이상수가 강의하며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3시간씩 총 28회로 오는 9월 1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개강식에는 3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강사들의 인사말 및 가요강의 등이 진행됐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봉화농어업회의소, 지역 인재 양성 ‘힘 보태’



(사)봉화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5일 군청을 방문해 지역 교육발전 및 인재양성을 위해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위원회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2012년 8월에 설립된 봉화군농어업회의소는 1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민간 농경협의체로 출하 협

정을 맺은 250여농가에서 생산된 채소류와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지역 농·특산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성주 새마을교통과, 환경정화 봉사



성주군 새마을교통과는 6일 ‘2024 성주군의 전국마라톤대회’를 맞아 마라톤 코스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자원봉사활동은 새마을교통과 직원 17명이 일과시간 전 ‘더 좋은 성주 만들기’를 위한 작은 협력을 실천하고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성주읍마라톤 코스 주변에 모여 하천 주변 일대 담배꽂초와 음료수 팩 등 각종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했다. 또한 도로변 등 주변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청결 작업을 펼치는 등 자원봉사활동에 직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김일호 기자hoyai1515@daum.net

상주농기센터, 쌀·밀 이용법 교육



상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일부터 농업기술센터 제1세미나실에서 시민 6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우리쌀, 우리밀 활용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밀을 이용한 맥주만들기 과정으로 오는 21일까지 3개 조로 20명씩 총 9회 교육이 진행되며 쌀과 밀을 활용한 맥주 만들기를 통해 지역 생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교육내용은 맥주 제조 기본이론과 맥주 문화 등 이론교육과 상주쌀과 우리밀 이용 맥주 만들기 실습 교육으로 구성해 진행된다.

서정현 미래농업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다양한 쌀과 밀 이용 방법을 전파하고 주식으로써 이미지탈피를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활용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Advertisement for '문경' (Mungyeong) featuring a large image of an open book with a landscape scene. Text includes: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백두대간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는 짜릿함 단산관광모노레일',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 '공정의 힘! 문경'.



구미 낙동강 수변공원 명품 힐링명소 '자리매김'

다양한 관광·체육 인프라 구축 낭만 문화도시로 변신
파크골프장 전면 양성, 도내 최다 보유로 여행객 유입
정규 공인 규격 야구장 추가 조성, 전국 단위 대회 유치
비산 나룻길·지산 셋강 생태공원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사계절 온종일 즐길 거리 가득한 '도심 핫 플레이스'



구미 낙동강 수변공간이 시민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구미산업단지의 젓줄인 국가하천 낙동강 수변공간에 최근 다양한 관광·체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낙동강은 구미시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5개의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풍부한 용수를 공급해 왔으며 구미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보고다. 구미는 민선8기 출범 후 그동안 산업도시로 무미건조한 회색 도시 이미지를 탈피해 일상이 행복이 되는 낭만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시는 낙동강 주변을 주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키 위해 △파크골프장 6개소(216홀) 조성 △인조 잔디 야구장 조성 △비산 나룻길 및 갈대 습지 탐방로 조성 △지산 셋강 생태공원 명소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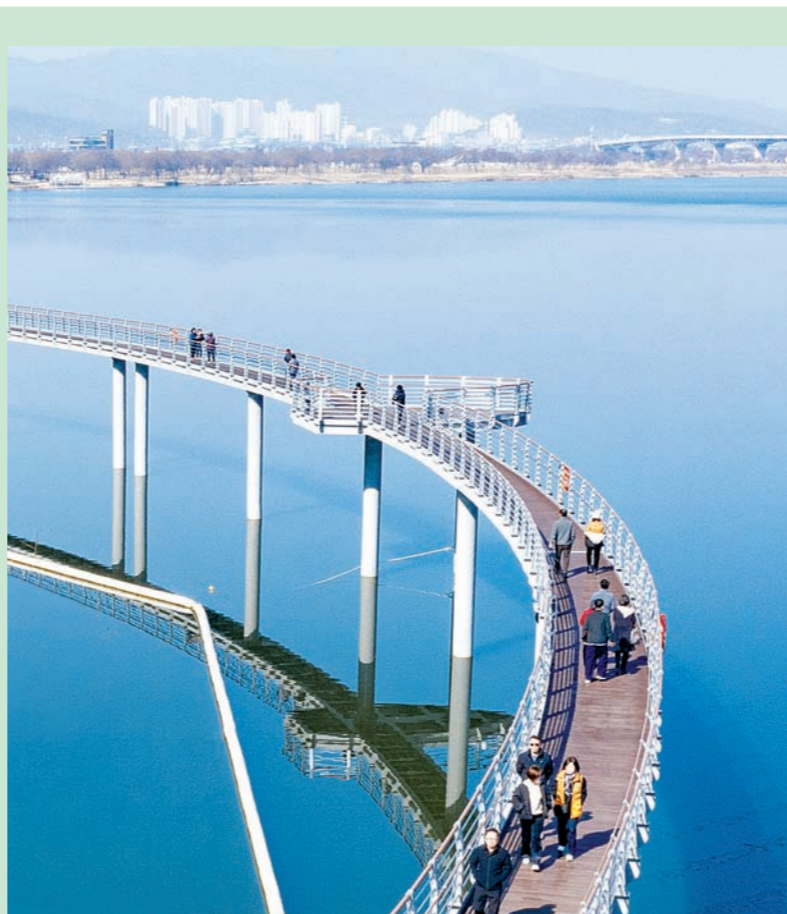
◆파크골프장 명소로 주목

시는 하천법과 환경영향 규제에 의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지역 내 파크골프장을 전면 양성화했다. 지난해 10월 양성과 철차 완료로 구미(63홀), 동락(36홀), 양포(18홀)의 3개 구장을 정상 운영해 왔고 일부 미허가 된 선산(27홀), 도개(36홀), 해평(9홀) 등 곳은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을 지속 건의하는 등 협의를 진행했다. 파크골프장 전면 양성화가 완료되면 현재 조성 중인 옥성(9홀) 구장과 함께 전체 216홀로 도내에서 제일 많은 파크골프장을 보유하게 된다. 파크골프장에는 주중·주말을 가리지 않고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찾아 구미의 또 다른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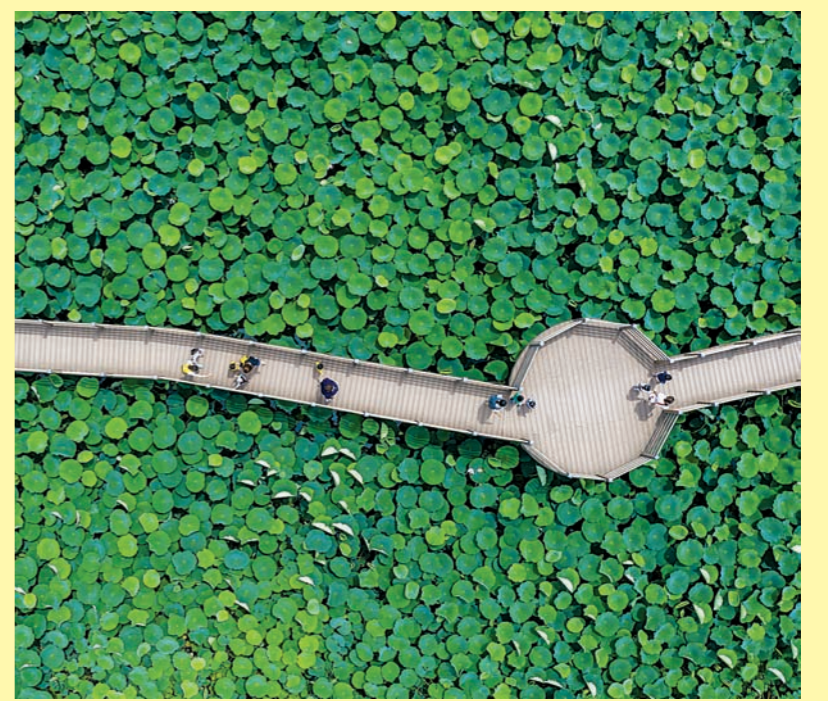
◆정규 공인 규격 인조 잔디 야구장(4면)

구미대교 아래 낙동강변에 전국대회가 가능한 공인 규격의 인조 잔디 야구장(3면)이 올 4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홈 구장 3면 야구장(3만6000㎡ 규모)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인조 잔디, 웬스, 더그아웃, 본부석 등을 설치한다. 또 올해 지산 낙동강 체육공원에 인조 잔디 야구장 1면을 추가로 조성해 총 4면의 정규 공인 규격의 야구장으로 각종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비산 나룻길 및 갈대 습지 탐방로 조성

지난 2월 개방한 낙동강 탐방로 '비산 나룻길'은 비산 나루터에서 구미천 종점부까지 이어지는 길이 1km의 산책로로 총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상 보도교와 데크길로 해당 구간을 연결했다. 낙동강을 따라 조성된 '비산 나룻길'은 강가의 아름다운 풍경과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어 탐방객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는 낙동강과 구미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갈대 습지 1.3km 거리에 탐방로를 조성한다. 탐방로는 습지에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만큼 상세한 계획 수립과 하천정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에 개방될 예정이다.



◆지산 셋강 생태공원 명소화 사업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지산 셋강 생태공원은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연꽃, 겨울에는 천연기념물 큰고니의 도래 등 전 Jahres의 자연을 시민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시는 벚꽃 시즌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산책로 주변 벚나무 아래에 야간 조명등(LED) 250개를 설치했다. 민들레 조명과 초승달 조명 등 다양한 형태의 조명 설치로 특색 있는 야간 경관을 연출해 방문객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국 3대 천연기념물 큰고니를 상징하는 큰고니 부부 상징 조형물을 데크 광장에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황토 맨발 길 체험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라 지산 셋강 생태공원 기존 산책로에 황토 맨발 길 시범 구간(L=250m)을 조성해 황토길, 황토폘, 황토볼, 세족장, 신발장도 설치했다. 올해는 황토 맨발 길을 추가로 연장(L=750m)해 다양한 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이달 중 무인카페도 오픈하며 산책로 데크에 경관조명도 설치해 구미의 '핫 플레이스'로 조성키로 했다. 김장호 시장은 "서울 한강의 수변공간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잘 조성돼 있으나 지방은 각종 규제에 지긋지긋 바라만 보는 하천으로 전락해 안타깝다"라며 "앞으로 중앙부처에 규제 완화 건의를 통해 낙동강을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칼럼

개구리와 뉴올리언스(上)

전호제
세프



지난 2월 13일은 미국 뉴올리언스의 마디그라(Mardi Gras)였다. 부활절 47일 전인 이날은 기름진 화요일이라는 뜻으로 전세계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다. 그중에서 뉴올리언스의 프렌치쿼터(French Quarter) 가장행렬 행사는 화려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가장 미국적인 음식은 무엇일까? 내가 처음 미국에서 가졌던 공금증이였다. 미국의 식민지가 처음 생긴 곳부터 따져보면 미국 남부였다. 루이지애나주는 미국지역 음식에 프랑스, 스페인의 영향을 받았고 케이준 향신료의 매콤함도 살아 있는 음식이 많이 있다고 했다. 뉴올리언스는 여러 유명식당이 많이 모여 있는 루이지애나주의 중심지이다. 지난 2005년 내가 다니던 뉴욕의 요리학교는

4개월 정도 레스토랑 실습을 해야 했다. 그래서 짧은 여름 방학 동안 미국 남부의 식당을 방문해 보기로 했다. 뉴올리언스에서는 커맨더스 팰리스(Commander's Palace)가 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역사가 무려 10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개구리, 자라, 새우 등 그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로 특색있는 전통음식이 많았다. 처음 뉴올리언스 공항에 내려 시내로 들어왔을 때는 아프리카의 어느 도시에 온 것 같이 느껴졌다. 인종구성상 흑인의 비율이 70% 정도였던 시절이었다. 그런 이유로 미국 블랙아메리칸의 전통적인 음식들도 많았고 거리에는 정통 재즈바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식당 근처로 들어서니 예전 미국 남부의 목조주택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페인트칠이 돼 있고 단층으로 마치 서부영화에 나올 법한 모양이었다. 조금 더 걸어가니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지어진 2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내 소개를 하고 나니 셰프님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여기 뉴욕에서 CIA 요리학교 학생이 우리 식당을 보러 왔다". "호제! 공금한 건 모든 물어봐"하면서 여기 저기 라인을 보여줬다. 그러더니 여기 있는 재

료 어떤 요리든 상관없으니 만들어 보라고 했다. 그 전에 여러 군데 스타지(stage, 레스토랑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것)를 했지만 음식을 만들어 보라는 곳은 처음이었다. 난 이곳의 생선 구이에 양파크림소스에 튀김파를 얹은 요리를 만들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간단했지만 셰프님은 양파의 달달함이 있는 소스가 간이 잘 났 생선구이와 어울린다면서 칭찬을 해주셨다. 그리고는 주방 곳곳을 여행하듯 구경하고 그 유명한 해산물 스테인 검보도 맛을 보았다. 새우와 굴처럼 지역특산물 요리가 많아서 남부 요리를 배우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셰프님과 이후 다시 연락해서 실습 날짜를 잡기로 했다. 이때 받은 메뉴판에는 그날의 날짜와 셰프님의 사인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그날 속소로 돌아온 후에 몇몇 식당을 방문했다. 개구리 뒷다리 튀김이 유명한 곳을 가봤다. 케이준 스파이스가 은은한 통통한 살은 작은 닭다리를 먹는 느낌이 들었다. 프렌치쿼터라는 곳에서 달콤한 베니에(beignet, 프랑스 영향을 받은 도넛)을 먹어보기도 했다. 뉴스1 (2452호에 계속)

독자기고

학교폭력 없는 신학기를 기대하며

우정민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감



3월은 영어로 March이다. 어학사전에 보면 '행진하다'라는 뜻이 있다. 신학기의 시작과 행진이라는 단어가 어쩐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또한 3월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긴장과 집중의 시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1년 중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는 각 학교에 방문해 학교폭력 등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곳에 특별 순찰을 실시하기도 한다. 신학기에 실

시는 범죄예방 교실은 매우 효과적이므로 가급적 학교별로 모두 실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관련자는 대부분 모두 어린 학생이며 발생하고 나면 가해자,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이 집중된다. 내 아이가 가해자라는 걸 알게 된 부모의 절망, 내 아이가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된 부모의 분노, 이런 상황을 가까에서 볼 때 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자책하며 되돌아 보게 된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길 바랄까? 또한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신체나 마음에 회복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가해자도 그 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대학신학이나 취업에 문제가 될 수 있고 SNS 등 사이버상에서 그러한 내용이 순식간에

퍼져 낙인이 되기도 한다. 낯선 친구와 만나 적응하는 시기인 3월은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사소한 오해가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럴 때 가정에서는 아이가 평소와 다른점이 있는지 일상을 잘 살필 필요가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 연계(무료)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는 장난이 심한 학생의 주변에 이를 힘들어 하는 친구가 있는지,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잦은 결석을 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선생님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듯 가정과 학교 그리고 경찰이 마음을 모아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3월 신학기! 우리 아이들의 행진이 더욱 활기차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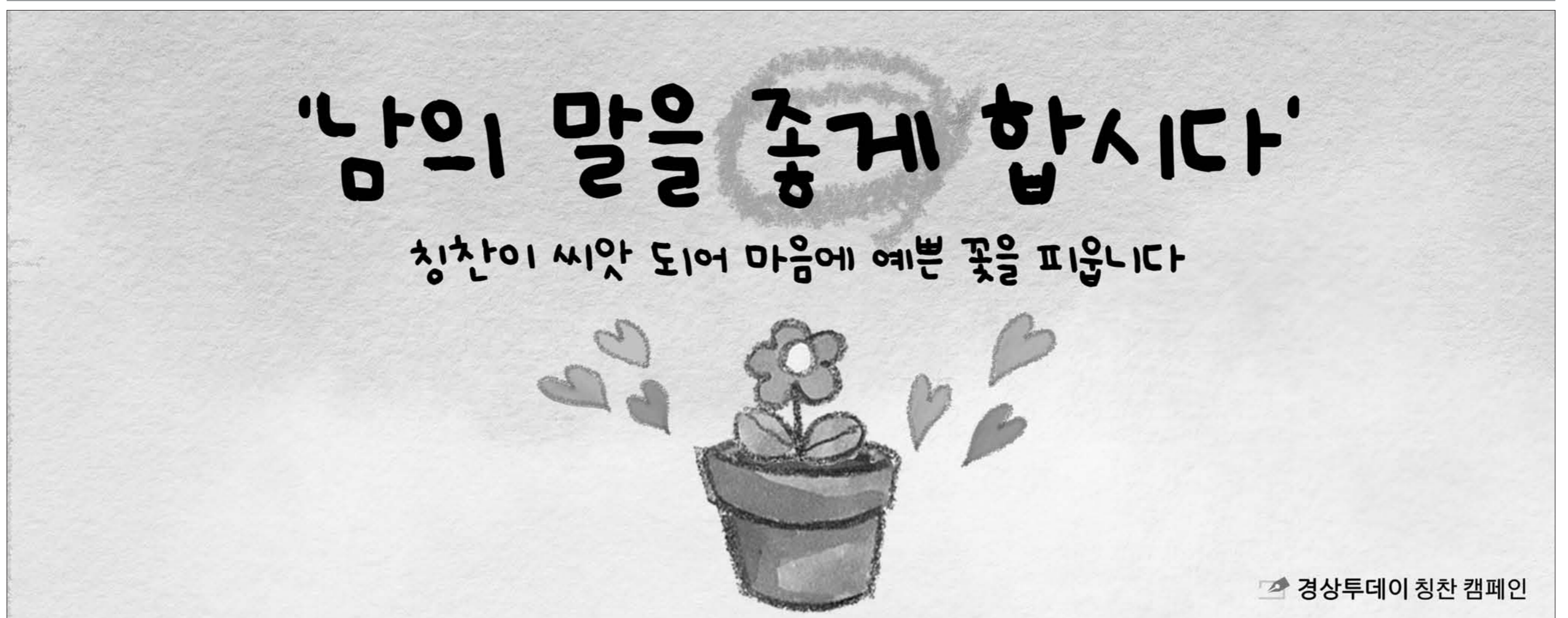
사설

비대면 진료, 이번 기회에 발전시켜야 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 효과는 수치로 확인됐으며 종전 대비 2배 가량 비대면 진료가 늘었다. 특히 비대면에 익숙한 MZ세대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다만 비대면 진료 가전면 허용됐지만 현재 진료 차질이 있는 중증 및 응급환자 문제를 해소하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의료진 집단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병원급', '초진' 환자로도 확대 적용했다. 그동안 막혀 있던 초진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해지자 기존 이용자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원격의료산업협회에 따르면 하루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약 1500건에서 이달 들어 하루 2250-3000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물론 중증 환자보다는 가벼운 증상 환자들이 동네 의원에서 이용했다. 야간과 휴일 이용은 유사했으나 평일 이용자들이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평일이나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닥터나우, 솔닥, 나만의닥터, 율라케어 등 비대면 진료 전문기업들은 어떤 상황일까, 마냥 웃을 수 없다. 지금같은 비상시국이 아니면 다시 허용 범위가 축소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교훈을 얻었다. 한 마디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서비스 축소와 확대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사들도 풀가동중이다.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회사는 고객서비스와 운영인력을 늘리지 못한다. 인력을 대폭 충원했다가 추후에 구조조정에 직면할 수 있다. 채용에 신중을 기한다.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도 불확실하고 사태가 진정된 이후 정책이 또 바뀌는 것도 큰 변수다. 코로나19 시기가 반면교사다. 당시 전면 확대로 열어 놓고 서비스를 했다가 사태가 진정된 이후 전문기업들은 힘든 시기를 겪었다. 구조조정, 비즈니스모델 전환 등 아픈 기억이 적지 않다. 대부분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려는 기업들인데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받는다. 투자자들이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린다. 비대면 진료는 어쩌면 '뉴 노멀'이다. 이제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단순히 전공의들 압박수단 또는 불가피한 대체 수단으로의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하나의 의료 모델로 인정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 방향성을 잡고 미세 조정은 하면 된다. 시민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습이 됐다. 자체적으로 대면 진료를 할지, 비대면으로 해도 될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는 비대면 진료를 좀 더 성숙시켜야 한다. 정부 역시 땀질식 도입이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법제화' 요구도 좀 더 청취하자. 반영할 것은 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된다. 약매송의 경우 찬반 논리가 엇갈린다. 진료 수가 문제 역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66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 양정로 2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당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사실전 요강을 준수합니다.	





꼭지가 달렸습니다! 청송사과 *fresh!*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 표준, '명품' 청송사과.

